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 综合韩国语教程

总主编 张光军

# 朝鲜-韩国 文学史 上

◎ 张光军 审订 ◎ 金英今 编著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解放军外语音像出版社



CS1619681

H559.4  
026-1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 综合韩国语教程

总主编 张光军



# 朝鲜-韩国 文学史 上

重庆师大图书馆

张光军 审订  
金英今 编著

1476263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北京

解放军外语音像出版社  
洛阳

##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鲜—韩国文学史. 上 / 张光军主编; 金英今编著 . — 北京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0.6  
综合韩国语教程

ISBN 978 - 7 - 5600 - 9786 - 2

I . ①朝… II . ①张… ②金… III . ①朝鲜语—阅读教学—教材 ②文学史—朝鲜、韩国—教材 IV . ①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0) 第 124019 号

universal tool · unique value · useful source · unanimous choice



悠游网—外语学习 一网打尽

[www.2u4u.com.cn](http://www.2u4u.com.cn)

外研社旗下网站，打造外语阅读、视听、测试、共享的全方位平台

登录悠游网，您可以：

- 阅读精品外语读物，独有资源，涵盖广泛，学习必备。
- 观看双语视频、名家课堂、外语系列讲座。
- 多元外语测试，检测外语水平和专项能力，获得外语学习方案。
- 外语资源共享，网友互动，小组讨论，专家答疑，语言学习无疑难。
- 网站推出众多精彩大礼包，可通过积分换购。

贴心小提示：

刮开刮刮卡底，获得网站积分充值验证码，即可到网站注册、充值。

出版人：于春迟

责任编辑：尚明明

装帧设计：孙莉明

出版发行：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社址：北京市西三环北路 19 号 (100089)

网址：<http://www.fltrp.com>

印刷：北京京科印刷有限公司

开本：787×1092 1/16

印张：16.75

版次：2010 年 6 月第 1 版 2010 年 6 月第 1 次印刷

书号：ISBN 978 - 7 - 5600 - 9786 - 2

定价：34.90 元

\* \* \*

购书咨询：(010)88819929 电子邮箱：[club@fltrp.com](mailto:club@fltrp.com)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

联系电话：(010)61207896 电子邮箱：[zhijian@fltrp.com](mailto:zhijian@fltrp.com)

制售盗版必究 举报查实奖励

版权保护办公室举报电话：(010)88817519

物料号：197860001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 综合韩国语教程

顾问 金敏洙 韩国高丽大学教授  
朴甲洙 韩国首尔大学教授  
李翊燮 韩国首尔大学教授  
李得春 中国延边大学教授  
许龙 韩国外国语大学教授  
总主编 张光军 解放军外国语学院教授

## 参编院校及项目负责人 (按汉语拼音字母顺序排列)

北京第二外国语学院	杨 磊 金振杰
北京工业大学	俞春喜
北京联合大学	权震红
北京外国语大学	苗春梅
北京语言大学	崔顺姬
大连民族学院	尹敬爱
对外经济贸易大学	徐永彬
韩国外国语大学	金在旭
黑龙江大学	申昌顺
济南大学	靳葆强
解放军外国语学院	金英今
辽宁大学	张东明
南京师范大学	俞成云
青岛理工大学	王延红
山东大学	朴银淑
天津师范大学	金红莲
天津外国语大学	单体瑞
西安外国语大学	吴海利
延边大学	崔雄权 金永寿
烟台大学	丁凤熙
扬州大学	文英子
郑州轻工业学院	张炎钰
中国传媒大学	孙鹤云
中国海洋大学	李龙海

# 出版说明

随着中韩两国交流的日益频繁，近年来中国国内迅速掀起了韩国语学习的热潮，开设韩国语专业的院校和报考韩国语专业的学生迅猛增加。但由于国内的韩国语教材和教辅资料相对匮乏，给广大韩国语学习者的学习和韩国语教师的授课都带来了很大的困难。为了促进国内韩国语教学的发展，为广大教师提供权威、系统、实用的学习资源，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推出了“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是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包含了“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精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泛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朝鲜—韩国文学史”、“综合韩国语教程 韩国文学作品选读”等几大系列共三十余册，构成了完备的一体化的教学解决方案。目前已经出版的有“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泛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韩国文学作品选读”，正在陆续出版的有“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精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朝鲜—韩国文学史”等。

“综合韩国语教程 朝鲜—韩国文学史”作为“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之一，分为上下两册。每册按照朝代更替划分学习大单元的同时，为了突出文学史发展脉络，又以历史上的各类体裁作为学习小单位，在描述各种体裁的发生、发展和消亡的过程中，讲述相关的重要作家和主要作品。本套教材具有如下特色：

1. 每五到六课设为一个单元板块，按照文学体裁介绍朝鲜—韩国文学知识。
2. 练习形式多样，便于学生通过练习加深对课文重点知识的理解。
3. 为授课教师提供练习参考答案及其他相关教辅资料，便于教师备课和授课。

本套教材既适合韩国语专业中、高年级学生使用，同时也适合其他韩国语中、高级阶段的学习者使用。衷心希望本套教材能够帮助大家提高韩国语水平，全面了解朝鲜—韩国文学面貌，为今后的学习打下更好的基础。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0年6月

# 总序

随着中韩关系的不断发展，我国韩国语学习者的数量也在不断增加。各种各样的韩国语教材也应运而生，呈现出百花齐放、百家争鸣的景象。我们编写的这套“综合韩国语教程”，也必将为这一绚丽的景象增添姹紫嫣红。

“综合韩国语教程”因为其科学性、规范性、系统性、实用性，被评为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入选该系列教材的各门课程的教材，都在现实教学中使用过，有些还在比较大的范围内使用了多年，经历了实践的检验。在广泛征求老师和学生的意见后，编者又进行了相应的修改。因此，这是一套比较成熟的教材。

总主编从事韩国语教学已有三十余年，编写出版各类韩国语教材近二十部，发表与韩国语教育相关的论文近百篇，并获得过国家级教学成果奖等各类奖项。参加教材编写的各校老师，都是既有丰富教学经验，又有教材编写经验的骨干教师。此外，该教材还聘请了国内外韩国语学界著名学者担任顾问。因此，这套教材的质量是可信的。

本教程在编写过程中，参考了国内外各类参考资料和大量相关教材，在此，谨对这些资料和教材的作者表示衷心的感谢。

诚挚地敦请各位专家、学者、老师、同学们对教材提出宝贵的意见。希望通过大家的共同努力，使我们的教材日臻完善。

总主编 张光军

2010年6月于古都洛阳



# 前言

作为文学的历史，文学史是按照一定的评价标准梳理历史上各种文学现象的产物。既然是一种历史，我们就可以参照历史学家的划分方法，按照朝代更替分阶段叙述历史上的文学现象。但是，文学又有它自己内在的发展轨迹，文学的发展脉络和朝代更替变化并不完全一致，文学史需要找出更加符合文学发展脉络的叙述单元。历史上的各类文学现象往往表现为各种不同的体裁类型，可以说这些不同体裁的生灭更替构成了生动的文学发展史。有鉴于此，这套教材在按照朝代更替划分学习大单元的同时，为了突出文学史发展脉络，又以历史上的各类体裁作为学习小单位，在描述各种体裁的发生、发展和消亡的过程中，讲述相关的重要作家和主要作品。至于有一些横跨两个朝代甚至三个朝代发展而来的体裁，则根据其在文学史上的重要性，有些按朝代分别叙述，有些则按照其鼎盛期来确定它在学习单元中的位置。

这套教材分上下两册，凡六大单元三十五课。每个单元开始的时候，都给出相应的历史年表以确定其大的方位，而每一课都是按照其发生年代以从古至今的顺序排列的。课文的编排，主要由课文原文、课文译文、单词注释和练习题组成，同时适时加入背景知识、作者（作家）档案、原典选萃、掌故逸闻等板块以增加学习的趣味性。为了提高文学史学习的效率，课文给出了完整的译文；单词注释给出的是课文中出现之单词的惟一含义；练习题侧重语言、知识和能力的培养，给出相应的填空、问答和思考题；背景知识主要补充历史文献方面的知识；作者（作家）档案介绍重要作者的生平及其文学成就；原典选萃和掌故逸闻旨在增强感性认识，以巩固学习效果。教材还根据内容需求，附有丰富的插图，并附有练习题参考答案及参考文献。

朝鲜和韩国由同一个民族组成，语言相通，文学亦有千丝万缕的联系，从公元前后到二十世纪中叶的文学，是朝鲜和韩国共同的文学遗产，且占他们文学发展史的绝大部分。在此意义上，单独的朝鲜文学史或者韩国文学史是不存在的。出于这种考虑，这套教材将朝鲜文学和韩国文学放在一起加以描述，只是在当代文学部分才分开叙述。当然，朝鲜和韩国在语言习惯上有一些细微的差异，鉴于目前我国学习韩国语的学生占绝对多数，因此整体叙述遵从韩国的语言规范，而引用朝鲜文学内容时则遵循朝鲜的语言习惯，以作区别。

这套教材充分尊重和借鉴前辈学者的观点，努力以科学发展观的态度叙述朝鲜、韩国的文学现象以及作家作品。教材所涉及的内容和观点仅限于文学方面的学术探讨，无关其他。希望这套教材能为中韩、中朝之间良好的文化交流和友谊的增进做出积极的贡献。

最后，希望这套教材能够给大家带来学习文学史的乐趣，同时祝大家都能够拥有一张属于自己的清晰度较高的朝鲜—韩国文学史地图。

庚寅年二月，编者识于洛阳

# 目录

제1단원	상고-신라시기 문학 上古-新罗时期的文学 .....	1
제1과	가요 歌谣 .....	3
제2과	신화 神话 .....	14
제3과	향가 乡歌 .....	25
제4과	민담 民间故事 .....	35
제5과	동화와 우화 童话和寓言 .....	48
제6과	신라시기의 한시 新罗时期的汉诗 .....	60
제7과	수이전체 산문 殊异传体散文 .....	71
제2단원	고려시기 문학 高丽时期的文学 .....	83
제8과	민요와 참요 民谣与讖谣 .....	84
제9과	고려속요 高丽俗谣 .....	96
제10과	고려시기의 한시 高丽时期的汉诗 .....	108
제11과	의인전기체 산문 拟人传记体散文 .....	120
제12과	경기체가와 악장 景几体歌和乐章 .....	132
제3단원	조선조시기 문학 朝鲜朝时期的文学 .....	145
제13과	가사 歌辞 .....	146
제14과	시조 时调 .....	159
제15과	패설과 시화 碑说和诗话 .....	173
제16과	조선조시기의 한시 朝鲜朝时期的汉诗 .....	184
제17과	한문소설 汉文小说 .....	199
제18과	국문소설 国文小说 .....	213
연습문제	참고답안 练习题 参考答案 .....	229
참고문헌	参考文献 .....	252
后记	.....	253



# 제1단원



## 고조선왕의 계보

고조선 (BC 2333년 경 ~ BC 108년)*	도읍지: 왕검성
단군 왕검(王儉)	부왕(否王)- 준왕(準王)



## 신라왕의 계보

신라 ( BC 57년 ~ AD 937년)      도읍지: 금성(金城) = 현재의 경주(庆州)									
1	혁거세왕	13	미추왕	24	진흥왕	35	경덕왕	46	문성왕
2	남해왕	14	유례왕	25	진지왕	36	혜공왕	47	현안왕
3	유리왕	15	기림왕	26	진평왕	37	선덕왕	48	경문왕
4	탈해왕	16	흘해왕	27	선덕여왕	38	원성왕	49	현강왕
5	파사왕	17	내물왕	28	진덕여왕	39	소성왕	50	정강왕
6	지마왕	18	실성왕	29	무열왕	40	애장왕	51	진성여왕
7	일성왕	19	눌지왕	30	문무왕	41	현덕왕	52	효공왕
8	아달라왕	20	자비왕	31	신문왕	42	홍덕왕	53	신덕왕
9	벌휴왕	21	소지왕	32	효소왕	43	희강왕	54	경명왕
10	내해왕	22	지증왕	33	성덕왕	44	민애왕	55	경애왕
11	조분왕	23	법흥왕	34	효성왕	45	신무왕	56	경순왕
12	첨해왕								
무열왕(654년~661년), 문무왕(661년~681년), 경순왕(927년~935년)									

\* 檀君源于韩国民间传说《檀君神话》，檀君出生的年代不可考证，其生活年代只是韩国学者的推测。



## 백제왕의 계보

백제 ( BC 18년 ~ AD 660년)

도읍지: 위례성(慰禮城) → 웅진성(熊津城) = 현재의 공주(公州)

→ 사비성(泗泌城) = 현재의 부여(扶餘)

1	온조왕	2	다루왕	3	기루왕	4	개루왕	5	초고왕
6	구수왕	7	사반왕	8	고이왕	9	책계왕	10	분서왕
11	비류왕	12	계왕	13	근초고왕	14	근수고왕	15	침류왕
16	진사왕	17	아신왕	18	전지왕	19	구이신왕	20	비유왕
21	개로왕	22	문주왕	23	삼근왕	24	동성왕	25	무령왕
26	성왕	27	위덕왕	28	혜왕	29	법왕	30	무왕
31	의자왕								

근초고왕(346년~375년), 무령왕(501년~523년), 의자왕(641년~660년)

## 제1과 가요 歌謡

한국문학의 최초의 존재양식은 고대가요이다. 고전문헌의 유실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한국의 고대가요는 많지 않다. 〈구지가(龜旨歌)〉는 현전하는 한국 최초의 가요이다.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해지고 있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지를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 노래는 가락국(駕洛國)에서 수로왕(首露王)을 맞이하면서 부르던 노래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먼 옛날, 이 땅에는 아직 나라도 임금도 없었고 백성들은 구간\*(아홉 추장)의 통솔 하에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구지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 황천(皇天)에서 이곳에 임금을 보내 왔는데 너희들은 흙을 파면서 〈구지가〉를 부르라고 하였다. 구간들은 기뻐하며 그대로 하였더니 하늘에서 금합이 내려왔고 열어보니 해같이 둥근 알 여섯 개가 나왔다. 그들은 수없이 절하여 사례하였다. 이튿날 그 알은 모두 사내애로 변하였다. 세월이 흘러 애들은 자라서 키가 9척이나 되고 용모 또한 준수하여 가히 임금이 될 만하였다. 하여 그 중 하나가 보름날에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수로왕이다. 나라 이름을 가야국(伽倻國)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6가야의 하나였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기타 다섯 가야의 임금으로 되었다.

이처럼 〈구지가〉는 가락국의 건국신화와 연관되어 여러 사람들이 흙을 파고 춤을 추면서 부르던 주술적인 집단무요였다. 이 노래는 기원 1세기 좌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



\*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나오는 가야의 건국설화에 따르면, 아도간(我刀干) · 여도간(汝刀干) · 피도간(彼刀干) · 오도간(五刀干) · 유수간(留水干) · 유천간(留天干) · 신천간(神天干) · 오천간(五天干) · 신귀간(神鬼干) 등이 각각 김해(金海)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김수로(金首露)를 왕으로 추대하여 금관가야국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나 가사의 내용과 형식으로 보아 원시사회 가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형태상 간단한 4구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단순 반복 등 수사학적인 수법을 보아도 그렇다.



고대 가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이다. 일명 <공후인(笠筏引)>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문헌들인 《고금주(古今注)》, 《예문유취(藝文類聚)》 등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해동역사(海東繹史)》에 다시 기록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公無渡河  
公竟(終)渡河  
墮河而死  
將(當)奈公何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임아, 강을 건너지 마소.  
임은 기어이 강을 건너네.  
강에 빠져 죽고 말았으니  
임아, 이를 어이하리오.

중국 최표의 《고금주》에 의하면 이 노래는 고조선의 괴리자고(霍里子高)의 아내 여옥(麗玉)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느 하루, 조선의 진졸(津卒) 괴리자고가 새벽에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웬 백발 광부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강을 건넜다. 뒤에서 아내가 따라오면서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광부는 기어코 강을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 아내는 슬픈 나머지 공후를 타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마디마디가 처량하고 구슬펐다. 괴리자고는 집에 돌아와 아내 여옥(麗玉)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여옥이 다시 부르고 이웃 여인에게 전해지면서 널리 퍼졌다.



이 노래는 남편을 읊은 한 여인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개인서정가요로서 주술적인 원시 가요에 비해 정서적이고 개성적이다.

백제의 〈정읍사(井邑詞)〉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수록되어 있다. 《고려사 · 악지(高麗史 · 樂志)》의 속악해제에 의하면, 행상을 떠난 임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아내가 근심하면서 읊은 노래라고 한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어고야 멀리멀리 비춰 주십시오  
어고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시장에 계신가요  
어고야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고야 어강도리

아무데나 놓으십시오  
어고야 그대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고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이름도 없는 한 서민 부부의 정을 노래한 것으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

고대가요는 기원전후의 시가로 한국 서정시의 원형을 이룬다. 고대가요들은 구전되다가 후대에 한자, 또는 한글로 기록되었다.

### 单词注释 단어해석

가(可)히: 能够  
공후(笠篌): 笠篌  
광부(狂夫): 狂夫  
구전(口傳)되다: 口口相传  
무요(巫謠): 巫谣

비추다: 照亮  
비틀거리다: 跤踉跄跄  
사공: 船夫  
사례(謝禮)하다: 致谢  
상고(上古): 上古

## 背景知识 배경지식

###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일연(一然, 1206년~1289년)이 고려 충렬왕(忠烈王) 7년(1281년)에 인각사(麟角寺)에서 편찬한 삼국 시대의 역사서이다. 5권 2책으로 된 이 책은 왕력(王曆) · 기이(紀異) · 흥법(興法) · 탑상(塔像) · 의해(義解) · 신주(神呪) · 감통(感通) · 피은(避隱) · 효선(孝善)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왕력 :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후삼국 시대의 연대표

기이 : 고조선, 삼한, 부여, 이서국(伊西國), 고구려와 신라의 신기한 이야기

흥법 : 불교 전래 및 고승들의 행적

탑상 : 탑, 불상 등에 얹힌 이야기와 사탑의 유래

의해 : 고승들의 행적

신주 : 이승(異僧)들의 전기

감통 : 영험, 감응의 기록

피은 : 은둔한 승려들의 기록

효선 : 효행, 선행 미담

진솔(眞率)하다: 率真的

진졸(津卒): 艄公

진창: 泥潭

추장(酋長): 酋长

통솔(統率)하다: 统率

행상(行商): 游商, 流动商贩

현전(現傳)하다: 流传至今

현존(現存)하다: 现存

황천(皇天): 苍天, 上天

후대(後代): 后代, 后世



## 《해동역사(海東繹史)》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서술한 한국의 역사서로 신활자본(新活字本)이며 85권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정조(正祖) · 순조(純祖) 때의 사학자(史學者) 한치윤(韓致齋, 1765년~1814년)이 편술한 본편 70권과 그의 조카 한진서(韓鎮書)가 보충한 속편 15권 6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체재는 기전체(紀傳體)이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고려 인종(仁宗, 1109년~1146년)의 명을 받아 김부식(金富軾, 1075년 ~ 1151년)이 1145년(仁宗 23년)에 완성한 삼국시대사이다. 현존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신라(新羅) · 고구려(高句麗) · 백제(百濟) 삼국의 정치적 흥망 변천을 주로 기술한 정사체(正史體)의 역사서이다.

## 《악학궤범(樂學軌範)》

《악학궤범(樂學軌範)》은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 있던 의궤(儀軌) · 악보를 정리 편찬한 악서(樂書)이다. 유자광(柳子光, ?~1512년), 성현(成僕, 1439년~1504년) 등이 1493년에 왕명에 따라 편찬한 음악 이론서로서, 총 9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에는 연주 시의 의례나 법식, 악기의 모습은 물론 노래의 가사도 들어 있다.

## 《고려사 · 악지(高麗史 · 樂誌)》

《고려사 · 악지(高麗史 · 樂誌)》는 고려시대의 역사를 기술한 《고려사(高麗史)》 가운데 권70과 권71에 수록된 음악에 관한 기록이다. 1451년(문종 1)에 완성된 《고려사》는 목록 2권을 포함해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列傳) 50권 등 13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고려사 · 악지(高麗史 · 樂誌)》는 지의 24, 25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禮)와 악(樂)을 하나로 묶어 예악지(禮樂志)로 하지 않고 악지를 따로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 권24의 악1(樂一)에는 아악(雅樂)이, 《지》 권25의 악2(樂二)에는 당악(唐樂) · 속악(俗樂) · 삼국속악(三國俗樂) · 용속악절도(用俗樂節度)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 편년체(編年體)

사실(史實)을 연(年), 월(月), 일(日) 순서로 기록하는 서술 방식이다. 공자(孔子)의 《춘추(春秋)》가 그 효시이다. 송(宋)대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은 대표적 편년체 역사서이다. 한국에서는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국통감(東國通鑑)》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이 편년체 역사서이다.

## 기전체(紀傳體)

기전체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 비롯되었다. 사기는 본기(황제의 업적), 세가(제후의 전기), 서 또는 지(제도 문물), 표(연표), 열전(각 분야의 저명한 개인의 전기)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본기(本紀)와 열전(列傳)만 있으면 기전체의 기본 요건은 갖추게 된다. 따라서 기전체는 인물 중심의 종합적 역사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정사(正史)는 반드시 기전체로 편찬되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기전체를 정사체(正史體)라고도 한다. 중국의 경우,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 25사가 기전체로 편찬된 정사이다. 한국의 경우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사(高麗史)》가 이에 해당한다.

##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사건의 명칭을 제목으로 내걸고 그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모아 그 사건의 발단과